

「哲學하는 것」의出發點에對한一疑問

朴鍾鴻

一

나의 問題의 所在는 學校의 一科目으로서의 講壇哲學을 學習함에 잇서서 그 무엇으로부터 始作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안이다. 다음으로 古代哲學의 發端을 새로히 穿鑿하려는 것도 안이다. 「哲學하는 것」(Das Philosophieren)의 出發點이 나의 問題다. 「哲學的 思索」의 出發點이라고 하여도 無妨할듯 싶으나 또한 觀想的 思辨哲學을 먼저 聯想케 되는 限에 잇서서 이 術語를 取하지 안었다. 爲先나의 疑問은 「哲學하는 것」의 出發點을 問題로 提起할 수 잇는가 없는가로부터 비롯한다.

그러나 「哲學하는 것」의 出發點이라고 別달리 잇지 안이한 것이 안인가. 無始無終 結局 한 哲學의 體系에 잇서서의 圓環의 一肢節로 볼 수는 없는가. 따라서 隨時到處 그 어느 것이 出發點안인 것이 없고 終結點안인 것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가. 그러나 이것은 完成된 體系를 假定한 然後의 일이다. 나의 問題는 그런 體系가 成立되기 前에 잇다. 아니 體系의 成立與否 조차 問題 外다. 出發點은 그대로 나의 疑問을 익글고 잇다.

出發點은 各異하며 漠然하여 問題삼을 수 없지나 안은가 哲學하는 사람은 그 누구나 切實한 自己의 問題를 가졌고 따라서 그 自己의 問題로부터 出發한다고도 볼 수 잇다. 全體적으로 보아 비록 些少한 問題일지는 몰으나 眞實로 積極的 精神을 가진 힘 잇는 「哲學하는 것」의 出發點이 되어잇는지도 몰은다.⁽¹⁾ 그리고 누구나 問題가 哲學的 問題임을 알고 그것이 哲學的 問題라고 하여서 비롯오 哲學을 하는 것이 안이라 ■■하게도 解決을 強迫하는 各自의게 잇는 엇던 矛盾이 드디어 「哲學하는 것」에까지 일으게 하는 것이나 안인가. 卽 哲學이 무엇이라는 概念을 가지기 前에 벌써 우리는 事實에 잇서서 哲學을 하고 잇다. 「哲學하는 것」은 사람의 本性에 屬한 것이오, 單只 學科의 一部門도 안이며 學者의 理智로서 짜내인 엇던 特異한 領域도 안

일 것이다. 「哲學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의 根本的 生起다. 따라서 哲學을 始作한다고 하여 本來의 사람을 떠나 別달은 生活을 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나는 나의 問題에 關聯되는 두 가지 點을 指摘할 수 있다. 첫째는 「哲學하는 것」의 出發點이 各人各樣 不一致하다는 것, 둘째는 그 出發點이 어느 때 무엇으로부터라고 明白하게 表現하기 거북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各異하고 漠然한 「出發點」인 以上 問題로 삼을 수 없지나 안인가. 假使 問題로 삼을 수 있다 하드래도 空然한 所用없는 勞力이나 안일가. 그러나 한번 돌이켜 생각해야 볼 때에 出發點이 各異하다는 것은 아무 곳 에서나 任意로 出發하여도 可하다는 意味는 안일 것이다. 한 엇던 出發點이 한 엇던 사람에게 있어서 必然的인 것이나 안이었든가. 그러면 엇지해야 것처럼 各異한가. 各異한 것은 도로혀 그것을 各異케 하는 엇던 地盤이 있음을 意味함이나 안인가. 明白치 못한 것은 이 出發點이 도로혀 엇던 概念 以前의 地盤에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反證하는 것이나 안인가. 出發點에 對한 나의 疑問은 더욱 커진다.

先人の 出發點을 그대로 襲用함이 便宜하지 안인가. 哲學을 함에는 自己의 問題를 最初부터 꼬집어 내어 展開하려고 할 것이 안이라. 偉大한 先人들의 꾸준히 開拓하여 나간 바 所謂 「荊棘의 길」의 뒷자취를 차차 그네들이 取한 出發點으로부터 걸어보는 것이 必要하지 안이 할가. 그리하여 先人들의 강한 思索力에 親炙하는 것이 爲先近道인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한낱 訓練이오, 方便은 될지언정 나의 말하는 바 「哲學하는 것」의 出發點은 못되는 것이다. 他人이 出發點삼은 것을 그 概念에 있어서 본 받고 想像하여 共鳴된 形式的 概念이 그대로 참된 自己의 出發點이 될 것인가는 疑問이다. 비록 同一한 概念으로부터 出發한다 하드래도 歷史的 社會的 背景을 가진 生活 그 것이 先人과 달은 以上 同一한 概念도 그 內包에 있어서 달을 것이오, 따라 「哲學하는 것」도 先人을 그대로 追從할 수 잇을 것인가는 亦是 疑問이다. (2) 事實에 있어서 어느 時代나 現實的 生活機構가 變革될 때 마다 哲學 自體도 새롭은 出發點을 가지는 것이나 안이었든가. 傳統的 假定을 버서나 새롭은 確固한 基礎를 求할 때 마다 언제나 出發點이 問題가 되지나 안었든가 또 假使先人の 概念을 그대로 自己의 出發點으로 삼는 일이 잇다 할지라도 새롭은 意味의 解釋을 부치어 結局 그 事實에 있어서 새롭은 出發點을 가지는 것이 되지나 안는가. 何如間 先人の 出發點을 그대로 襲用한다 하드래도 이 意味에 있어서 그것은 새롭은 出發點이라고 볼 수 잇을 것이다. 하물며 先人の 出發點 亦是 하나가 안이오, 各其 相異하여 본 받는다 하여도 取捨選擇을 하게 되는 以上 그에 對한 問題의 提出은 잇을 수 있다.

「哲學하는 것」自體에 있어서 出發點을 問題삼을 必要가 없지나 안는가. 그대도 各自의 出發點으로부터 哲學을 하얏스면 그 뿐 안인가. 이미 出發點以上 다시 그 出發點을 云謂함은 도로혀 矛盾된 일이나 안인가. 그러나 根本的으로 徹底한 態度는 爲先 무엇다도 一切를 建立하기 爲하야서의 根底인 出發點을 明確하게 考究함을 要求한다. 一時의 外面的 共鳴에 끌리어 自己의 眞實된 出發點을 이저 버리고 抽象的 概念의 展開에 沒頭하고 잇지나 안는가. 果然 明確한 吟味가 없이 始作된 出發點을 가지는 동안은 그로부터 前進하는 哲學的 勞作이 似而非한 虛實가 안임을 保證키 어렵지나 안을가. 더구나 「哲學하는 것」은 그것이 가진 出發點 如何에 딸아 그의 方向이 決定된다. 「哲學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이에 對한 解答도 그의 出發點 如何에 딸아 各異할 것이다. 이에 出發點에 對한 疑問이 結局 「哲學하는 것」自體에 對한 疑問이 될 것이다. 내가 처음에 잇서서 「哲學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하고 못지 안코 그의 出發點을 묻저 問題삼는 理由가 여기에 잇다. 於是乎 「哲學하는 것」은 그의 本質上 自體의 定義를 追求하기 前에 그 出發點이 問題가 되는것이안일가. 모든 哲學의 根本的 批判은 그들의 出發點을 묻저 檢■하는데잇지나 안이할가.

나는 위에서 「哲學하는 것」과 그의 出發點과의 關係를 大略생각하야 보았다. 그리하야 「哲學하는 것」의 出發點이 應當 問題가 될 수 잇다는 것 아니 가장 重要한 첫 問題인 것을 보았다.

(1) 나는 여기에 잇서서 이미 周知하는 바 Fichte가 그의 Erste Einleitung in Wissenschaftlehre. §. 5.에서 한말 卽 「사람이 엇더한 哲學을 選擇하는가는 그 사람이 엇더한 사람인가에 依存한다. 何故오하면 哲學體系는 마음대로 버려도 좋고 가져도 좋은 죽은 家具가 안이오, 그것은 그것을 所持하는 사람의 靈으로써 攪려져 잇는 것임으로」라고 한 것을 생각게 된다.

(2) Husserl은 그의 Philosophie als strenge Wissenschaft (in: Logos, 1, 1910)에 잇서서 「研究의 動機는 既存한 諸哲學으로부터서가 안이고 事象 及 問題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말하얏다. Hegel은 그의 Vorkursungen uber die Geschichte der Philosophie의 序論에 잇서서 「모든 哲學은 그 時代의 哲學이다」라고 말하얏다. 그리고 一層 豊富하게 規定된 概念을 가진 現代의 問題는 古代의 哲學으로 解決할 수 없는데도 不拘하고 尙且復古를 爲主한다면 이는 豊富한 發展의 材料를 一層 深遠하게 統括할 能力이 없는 所致임을 論하얏다. 여기에 잇서서도 우리는 結局 現代의 要求에 應하야 다시 先人을 超克함으로써 비롯오 그 精神을 살굴 수가 잇고 그 根本이 될 出發點을 先人의 概念에 그대로 準據할 수 없음을 알 수 잇다.

二

그러면 「哲學하는 것」의 出發點은 大概 엇더한 것이 잇섯든가. 모든 哲學者에게 이서서 各其 出發點은 마치 그네들의 時代, 民族, 階級 及 至個性이 不一하였든 것과 같이 그 亦相異하였다. 첫재로 神이나 絶對者 或은 無 그 外에 唯一의 最高 原理라고 생각되는 것으로부터 出發하는 哲學이 있다. 여기에서는 出發點이 「그것 自體로서의 最初의 것」이 된다. 그리하여 現實的인 나를 主로 하여 본다면 나의게 最初의 것이 안이오, 도로혀 最後의 것이 된다. 이 意味에 이서서 이 出發點은 本質 上을 보아서는 갓가우나 現實的인 나와는 가장 距離가 잇는 것이다. 卽 존재론的으로는 갓가우나 存在的으로는 넘우나 먼 곳에 있다.⁽¹⁾ 이와 같이 「그것 自體로서의 最初의 것」은 「나의게 이서서의 最後의 것」인 以上 우리의 「哲學하는 것」의 出發點은 못된다. 그런 原理에 到達하기까지에는 나의게 갓가운 곳으로부터 出發하였든 것이나 안인가. 나의 問題는 그 原理에서 엇더케 出發할가 하기 前에 엇더케 그 原理를 把握할 수 잇는가에 있다. 그러타고 所謂 「哲學의 立場」을 말하는 것도 안이다. 그 立場이라고 할만한 것이 形成되기 以前의 出發點이 나의 問題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헤-겔」은 純粹存在로써 그의 論理學의 出發點을 삼았다. 그러나 그러한 純粹知識으로서의 概念에 到達하기까지에는 精神現象學이라는 苦勞의 畏久한 路程을 經歷하였섯다. 決코 마치 「피스톨」로부터 發射된 것처럼 媒介없이 突然히 나타난 것도 안이엇고 天來의 靈感으로서 얻은 藝術的 直觀의 直接內容도 안이엇다. 「훗사-르」이 그의 純粹意識의 領域을 끄 집어 내기까지에는 現象學的 還元이라는 難關을 넘어야 되는 것이엇다. Cogito라든지 Monade라든지 或은 純粹自我, 絶對無, 純粹經驗 乃至體驗 等等으로부터 비롯오 哲學이 始作되는 것이 안이라 엇더케 하여 그런 概念에 먼저 到達하는가 그 때의 出發點을 나는 못는 것이다. 그러한 根本原理의 概念은 哲學的 天才의 突發的 啓示로만 그의 所出來를 알 수 잇는 것인가. 넘우나 우리의 出發點으로 採擇하기에는 距離가 잇는 것이다. 哲學하는 사람의 精力을 傾注하였다 할 第一 重要的 點은 그런 根本原理의 概念에 到達하기까지에 숨어잇지나 안는가. 이것을 明白히 하려고 努力하는 곳에 「哲學하는 것」의 남달은 困難이 잇고 다시 그 高貫한 所以가 잇지나 안이할가. 天上으로부터 地上에 降臨하면서 이것을 說明하려는 原理로부터의 出發을 버리고 地上으로부터 天上을 向하여 올라가여야 할 것이 안인가. 論理的 判斷으로부터 出發하는 「칸트學派」라든가 表象으로부터 出發하는 獨塊學派라든가는 亦是 모다 그들이 出發點으로 삼은 것 以前의 卽 그 背後에 잇는 全體의 領域으로서 抽象된 것 그것으로부터 始作하였든 것이나 안인가. 그러한 判斷이나 表象에 到達하기 前에 그 地盤이 되어 잇는 全體의 具體的인 出發點이

있는 것이나 안인가. 抽象된 概念으로부터 出發할 때에 現實의 不合理한 모 든 曖昧한 要素는 削除되고 明決한 一目瞭然한 進路를 밟게 된다. 그러나 그 明決을 爲하여서는 얼마나 高價의 犧牲을 받치고 있는 것이라. 全體的이며 具體的인 그 以前의 出發點에서 그 었던 部分만을 抽象하여서 그 出發點으로 삼는 것이나 안이었든가. 이러한 弱點을 免하려면 「哲學하는 것」이 適切히 地上으로부터 올라가되 徹底하게 그 出發點을 우리의게 잇서서 그 中 直接的이며 具體的인 것으로부터 取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直接的인 것 具體的인 것으로 出發하려고 努力한 사람은 업섯든가. 나는 여기에 악가 暫間 말한 바 잇섯든 「헤-겔」의게 잇서서는 純粹存在라는 概念에 到達하기까지에 精神現象學이 잇섯고 「훗사-르」의게 잇서서는 純粹意識의 領域에 到達하기까지에 現象學的 還元이 잇섯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그들 精神現象學 自體, 現象學的 還元 自體의 出發點은 果然 무엇이엇으며 었더한 것이엇든가를 알아보고저 한다.

「헤-겔」의 精神現象學은 直接的 感性的 意識 即 感性的 確信(Die sinnliche Gewissheit)으로부터 出發한다. 「헤-겔」은 그의 精神現象學의 感性的 確信이라는 條下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即 「感性的 確信의 具體的 內容은 그感性的 確信으로 하여금 直接으로 一見 가장 豊富한 認識인 것같이 안이 無限하게 豊富한 內容을 가진 認識인 것같이 보이게 한다. 感性的 確信은 그 外에 가장 참된 認識인 것같이 보인다. 何故오하면 그 確信은 對象으로부터 아직 아무것도 除去하는 것이 안이오, 對象을 그의 完全한 充足에 잇서서 보고 잇기 때문이다. 그러나 事實인 즉 自己自身이 가장 抽象的이오, 또한 가장 貧弱한 眞理인 것을 말하고 있다.⁽²⁾ 確信은 自己가 알고 잇는 것에 關하여 오직 그것이 잇다고 表現할 따름이오, 이 確信의 眞理는 다못 事態의 存在를 含有할 뿐이다. 意識은 意識으로서 이 確信에 잇서서 오직 純粹한 나로서 잇슬 뿐이다」 即 無媒介的으로 잇다는 것을 먼저 「헤-겔」은 본다. 그리고 「잘 注意하여 보면」 나와 對象이 無媒介的으로만 잇는 것이 안이오, 同時에 媒介되어 잇음을 안다고 하여 이에 感性的 確信 自身の 辯證法을 展開하였다. 그리하여 感性的 確信의 私念(Die Meinung)을 感性的 確信의 眞理인 一般者(Das Allgemeine)와 區別한다. 「헤-겔」에 잇서서는 이 一般者 뿐이 言語에 表現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感性的 確信이 私念하는 感性的 存在를 只今(Jetzt) 여기(Hier)에 잇는 이것(Dieses)이라고만 言表하여도 벌써 私念 自體는 否定되어 버리고 一般者가 指稱되어 잇는 것이다. 그럼으로 私念하는 感性的 存在는 決코 言表할 수 업는 것이 되고 만다고 하였다. 「헤-겔」은 그에 끄치지 안코 한 거름 더 나아가 이 感性的 存在의 實在性을 實

踐에 있어서 證明하려는 愚를 그의 獨特한 例의 심술구진 華法으로 反駁하고 나서 甚至於 動物에 있어서도 感性的인 物件의 實在性を 斷念하고 그 無害함을 깊이 確信함으로 서슴지 안코 이것을 삼아 다려 먹어버린다고까지 하얏다.⁽³⁾ 「헤-겔」의 出發點에 있어서 벌서 우리는 感性的인 物件의 實在성이 剝奪된 것을 본다. 「로고스」의 形態로 表現되기 以前의 現實的 地盤에 우리는 한 거름 더 遡及할 수는 업는가. 거기에서는 果然 「헤-겔」이 말하는 바와 같이 第一貧弱한 眞理 맞게 차줄 수 업는가. 우리는 「로고스」로 된 論理的 對象인 一般者를 생각하기 前에 벌서 恒常 感性的 實在性を 가진 여기에 이 「物件」이 잇슴을 確信하고 交涉함으로 生活하고 있다 할 수는 업는가. 「헤-겔」이 例로 든 動物이야 말로 그 앞에 노인 飼料가 感性的 實在성이 無實한 것이 안임을 確信하기 때문에 그 飼料가 缺如된 때 그의 積極的 行動이 事實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나 안인가. 外界의 實在는 그에 對한 信念이 無力하다고 볼 것이 안이라 도로혀 「딜라이」나 「막스 쉘라-」에 있어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衝動을 阻止하는 抵抗으로 나타나는 것이나 안인가. 우리의 感性的 確信은 그 始初에 있어서 存在를 規定되지 안은 存在로 對하지는 안는다. 「엇더케」잇다고 規定되여 잇지 안는 存在라고는 잇을 수 없다. 「헤-겔」이 처음에 提出한 오직 「그것이 있다」고 하여서 뿐 잇다는 그런 存在는 적어도 우리의 出發點에 있어서는 非現實的인 無意味한 것이다. 「헤-겔」은 그의 出發點인 感性的 確信이라는 「意識」을 그의 地盤인 現實的 存在에서 떼여내여 그 自身 獨立한 것으로 看做하고 考察을 始作한다. 여기에 感性的 實在性を 가진 對象이 容易하게 否認되는 根本動機가 潛在한다. 「헤-겔」이 여기에 있어서 感性的 確信이 私念한다고 보는 바 「存在」는 오직 마음의 自己內反省 即 自我가 感情規定이라는 意識의 素材를 自己로부터 分離한 後 規定을 준 存在에 不過한 것이다.⁽⁴⁾ 結局 感性的 存在가 여기에서 意識內의 對立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본다. 「헤-겔」이 非實踐的인 即 對象을 아는 데서 지나지 못하는 觀想的 態度에 있어서 뿐 意識을 보았다는 非難을 듣는 한 原因이 여기에 잇다고 볼 수 있다. 結局 「헤-겔」에 있어서의 哲學은 「헤-겔」 自身이 말하는 바와 같이 「現實이 自己의 形成過程을 完結하고 이미 終了된 때에 비릇오 나타난다」⁽⁵⁾는 말하자면 實踐 上 無能力한 學問에 不過한 것이었다. 일로써 우리는 「헤-겔」이 일으는 바 直接的 知識이라는 經驗的 感性的 意識을 出發點으로 取하지 못할 것임을 알었다.

「훗사-르」은 그의 考察을 周知하는 바와 같이 素朴的인 自然的 態度로부터 始作하얏다.⁽⁶⁾ 即 「表象하며 判斷하며 情念하며 意慾하는 自然的 生活을 하는 人間」으로부터 始作하얏다. 物體的인 物件은 내가 그것을 特히 注意하

건 말건 그것을 考察, 思惟, 情念, 意慾 하건 말건 엇던 一定한 空間的 配置에 있어서 나의게 對하여 오직 거기에 現存 (vorhanden)한다. 物件 뿐만 아니라 사람도 亦是 내가 그것을 注目아니하는 때에라도 나의 앞에 現實로서 現存한다. 「훗사-르」은 이와 같이 우리의 世界가 그저 單純한 事象界(die Sachenwelt)로서 거기에 잇슬 뿐 아니라 같은 直接性에 있어서 價値界(die Wertwelt) 財物界(die Güterwelt) 實踐界(die Fraktische Welt)로서도 거기에 잇다고 본다. 眼前的 物件은 事象의 性質을 具有함과 同時에 價値性格을 具有하고 잇다고 보며 더욱 直接的으로는 物件은 使用物(das Gebrauchsobjekt)로서 거기에 잇다고 본다.

이와 같이 「훗사-르」은 그의 自然的 態度的 記述에 있어서 外界의 對象物을 使用物로서까지 보리만치 그 存在를 認定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一切의 「理論」 以前의 純粹記述의 一部에 不過한 것이요, 이 態度에 逗留하는 것이 아니라 根本적으로 變更하여 버린다. 自然的 態度的 上述한 바 措定을 「作用外에 세우고」(setzen ausser Aktion) 이것을 「排除」(ausschalten)하고 이것을 「括弧친다」(einklammern). 그러타고 그 措定이 업서지는 것은 안이요, 그대로 거기에 마치 括弧치운 것이 括弧 속에 排除된 것이 連結 外에 잇는 것과 같이 잇다. 詭辯論者처럼 이 「世界」를 否定하는 것도 안이요, 또 懷疑論者처럼 그의 存在를 疑心하는 것도 안이다. 單只 現象學的 判斷中止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現象學的 獨特한 還元方法이다. 이리하고도 남은 現象學的 殘餘가 純粹體驗 卽 一方에는 意識相關者를 他方에는 純粹自我를 가지고 잇는 「純粹意識」이다. 이것이 現象學的 固有한 領域임은 勿論이다. (7)

모처럼 現實的인 自然的 態度로부터 出發은 하였스나 外界의 實在을 還元的으로 排除하여 無力케 하고 意識이라는 自己의 領域으로 들어가고 만다. 超越的인 事物은 內在的 體驗 안에 싸이고 만다. 그러면 여기에 排除된 外界의 實在은 何時에 解決되는가. 「훗사-르」에 있어서 還元이 잇슬 뿐이요, 意識에서 다시 排除된 外界로 나오는 通路가 업다. 純粹意識의 構造가 그의 여러 聯關에 있어서 果然 服 안이 할 수 없으리 만치 明晰하게 分析된다 하드래도 排除된 外界는 언제나 括弧 속의 問題 그대로 남아잇다. 우리의 哲學的 根本要求는 오히려 이 外界의 實在을 엇더케 解決하는가에 잇지나 안는가. 「훗사-르」은 그의 出發點에 있어서 벌서 이 根本問題에는 눈을 감으며 떠난다.

以上에 있어서 나는 우리의게 갓가운 곳으로부터 그들의 考察을 始作하였다고 할 「혜-겔」과 「훗사-르」이 亦是 滿足한 出發點을 提供하여 주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果然 우리는 어디서 우리의 出發點을 차자내여야 할 것인

가.

(1) Husserl은 그의 Ideen Zu einer reinen Phänomenologie usw. S. 93.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리하여 存在라고 하는 말의 普通의 意味는 ■倒된다. 우리의게 最初의 것인 存在가 自體的으로는 둘째 것이다. 卽 이 存在는 最後의 것에 對한 關係에 있어서 뿐 그것일 수 있다.」

Heidegger도 「存在的으로 가장 갖가운 것과 熟知되어 있는 것은 存在論적으로는 가장 먼 것이요, 未知의 것이며 그의 存在論的 意味에 있어서는 恒常看過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Sein und Zeit. S. 42. 參照

(2) Hegel은 System der Philosophie. § 418. 에 있어서도 「感性的 意識은 內容에 있어서 가장 豊富한 意識으로 보이지만은 思想에 있어서 가장 貧弱한 意識이다」라고 하였다. ■由信一의 日譯 「精神哲學」이 있다.

(3) Hegel, Phänomenologie des Geistes의 Die sinnliche Gewissheit의 章參照 金子武信의 日譯 「精神現象學」上卷이 있다.

(4) Hegel은 System der Philosophie. § 148. 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感性的 意識의) 그 (內容의 豊富)의 充實을 形成하고 있는 것은 여러 感情規定이요. 感情規定은 意識의 素材다.……마음의 自己內反省 卽 自我는 이 素材를 自己로부터 分離한 後 이것에 爲先存在의 規定을 준다.」

(5) Hegel,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Hrsg.v. Hotho) S. 20參照 Hegel은 바로 그 우에서 「世界가 엇더케 잇서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데 關하여 一言하면 哲學은 恒常 넘어나 늦게 온다」고 말하였다. 速水敬二, ■田■平의 日譯 「
く—■ル法の哲學」가 있다.

(6) Husserl은 그의 Nachwort Zu meinen,,Ideen Zu einer reinen Phänomenologie usw. ■S. 10. 에 있어서 眞實된 哲學의 端初에 일르는 方途가 許多할 수 잇스나 그런 여러 方途에 關한 必然的인 出發點은 自然的 素朴의 態度로부터 비롯한다는 意味의 말을 하였다.

(7) Ideen Zu einer reinen Phänomenologie usw. § 27-33 參照 鬼頭英一の 日譯 「純粹現象學的 及 現象學的 哲學觀」이 있다. 三